『혼불』의 서사 공간 해체 구도

김 수 연*

〈차 례〉

Ⅰ. 들어가며
Ⅱ. 이원적 공간 구성
Ⅲ. 쌍방적 공간해체의 본격화
Ⅳ. 청암부인과 공간 위계
Ⅴ. 나오며

Ⅰ. 들어가며

공간은 소설에서 '배경'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공간적 배경은 인물들이 놓인 여러 사회적·문화적 정황을 드러내는 매개적 역할을 수행한다. "소설의 공간은 사회적 삶의 양상을 표상"[1]한다는 점에 비추었을 때, 배경으로 제시된 공간을 분석하는 것은 소설의 의미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작업임이 드러난다. 즉, 배경으로 제시된 공간의 파악은 텍스트를 이해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배경은 단순히 사건이 벌어지는 공간적인 영역만을 지칭하지 않으며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1) 김인경, 「1970년대 연작소설에 나타난 서사 전략의 '양가성' 연구」, 『인문연구』 제59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50쪽.

소설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주제의식 구현에 이바지하는 주요한 요소로 자리한다. 인간의 삶은 근원적으로 공간과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자신을 둘러싼 공간과의 관계를 통해 규정될 수 있다.[2] 더불어 인물의 행동은 결코 공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독립적인 행위가 아니며 공간과 함께 형성된다는 점[3]을 주지한다면, 소설 읽기에 있어서 공간 해석의 중요성은 더더욱 강조되어야 마땅하다.

최명희의 『혼불』[4](1988～1995)은 전라북도 남원의 매안 마을을 중심 배경으로 삼아 이야기가 펼쳐진다. 눈여겨 볼 것은, 소설 속 배경으로 제시된 공간의 구성 양상이다. 매안 마을은 지리적인 구조를 토대로 하여 마을 구성원들의 의식 내부에 확고한 경계를 구획하고 있는 곳으로 그려진다. 이 경계는 물리적인 구획보다도 강력하고 확고하게 주민들의 의식을 지배한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 혹은 사건의 전개에 의해 인물의 의식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 마을의 확고했던 경계 또한 무너지기 시작한다. 청암부인의 죽음과 맞물려 일어나는 공간 해체의 움직임은 『혼불』의 주제의식 구현에 유효하게 관여한다. 『혼불』은 공간 구성을 통해 견고하다고 여겨졌던 수많은 경계가 해체되었던 구한말의 시대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혼불』에 있어서 공간이 점유하는 중요성과 별개로 『혼불』의 공간에 대한 연구는 그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장일구의 단행본과 몇 편의 소논문만이 『혼불』의 공간을 유의미하게 분석하고 있다.[5] 『혼불』

---

2)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이기숙 옮김,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르, 2011, 22~23쪽 참조.

3) 미케 발, 한용환·강덕화 옮김, 『서사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9, 179쪽 참조.

4) 최명희, 『혼불』 3권, 한길사, 1996.

5) 장일구, 『혼불읽기, 문화읽기』, 한길사, 1999.
_____, 「서사 구성의 공간성 함의 - 『혼불』 구성 논의의 전제」, 『서강어문』 제14집, 서강어문학회, 1998.

의 공간은 인물 간의 역학을 드러내는 것은 물론, 서사적 현실을 예견한다는 점 등에 미루어 물리적 장소가 아닌 표상적 공간으로 보아야 한다.

『혼불』의 공간은 서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체계라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에 본고는 『혼불』의 공간 구성에 초점을 맞추어 공간의 구조화 양상과 해체 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우선, 매안에 대한 서술자의 제시 방식을 통해 마을의 물리적 구조화 경향을 파악한 후, 인물들의 의식을 통해 매안과 거멍굴 사이의 보이지 않는 경계를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될 것이다. 이후, 확고한 것처럼 보였던 공간의 경계가 어떤 과정을 통해 무너지고 있는지, 그 양상을 살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혼불』에서 드러나는 공간의 해체 과정과 양상이 작품 전체의 주제의식 구현에 어떻게 이바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Ⅱ. 이원적 공간 구성

지리적 입지는 공간 내부 구성원들의 역학관계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특히, "외부인은 거주지의 우월한 입지를 통해 그들의 지위를 명확히 인식한다."[6]는 점에서 재차 확인할 수 있듯, 독자들은 소설 속 인물들의 입지를 통해서 인물의 지위와 역학관계에 대해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공간의 구조화를 살핌에 있어 주요한 단서 중 하나는 공간에 대한 서술이다. 공간에 대한 지각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으로 제시되는 공간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7] 『혼불』의 경우 매안과 거멍굴의 공간 제시

_____, 「대하소설의 공간 형상 시론: 『혼불』을 사례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권 1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2.

6) 이-푸 투안, 구동회·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대윤, 2007, 69쪽.

7) 미케 발, 앞의 책, 170쪽.

양상을 통해 지리적인 층위, 의식적인 층위에서 구조화가 이루어진다.

우선, 지리적인 구조화 양상을 살펴보자. 『혼불』의 경우 대부분의 공간 묘사가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는 서술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주요 공간적 배경인 매안을 중심으로 천민들이 모여 사는 매안 언저리의 거멍굴, 그리고 민촌인 고리배미가 배치되어 있다.

> 만일 낫을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날카로운 날끝이 노적봉 기슭의 매안이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한참을 걸어와 낫의 모가지가 기역자로 구부러지는 지점이 새로 생긴 정거장이며, 그 목이 낫자루에 박히는 곳쯤이 무산 밑의 근심바우 거멍굴이다.
>
>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와 맨 꽁지 부분 손 잡는 데에 이르면, 고리봉 언저리 민촌 마을 고리배미가 된다.[8]

매안과 거멍굴, 고리배미 사이에는 일정 이상의 거리가 존재한다. 특히, 매안과 거멍굴 사이의 거리는 '한참을 걸어'야 그 중간에 있는 정거장에 이를 수 있는 정도의 거리이다. 『혼불』에서 매안과 거멍굴은 고리배미를 경계로 구획되어져 거리를 두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이렇듯, 매안과 거멍굴의 주민들은 하나의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마을 주민들 사이에는 자신이 속한 거주지의 입지에 의해 일차적으로 물리적 거리가 주어진다.

공간의 구별은 차이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 중에서도 "주거 입지는 가치에 대한 유사한 위계를 보여준다."[9]인물들은 신분에 따라 특정 공간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인물들이 점유하는 공간은 인물을 드러내는 하나의 요소로 볼 수 있다. 즉, 매안과 거멍굴의 풍수적 조건과 마을 형성 과정에 의해 인물들의 위계가 설정된다.

---

8) 최명희, 앞의 책, 269쪽. 이후 인용은 해당 쪽수만 표기.

9) 이-푸 투안, 앞의 책, 69쪽.

예로부터, 사람이 모여 살아 마을을 이루는데 제일 좋은 명당은, 비산비야(非山非野), 산중도 아니고 들도 아닌 곳에 있다고 하였다.

그런 곳이라야 인물이 나고, 마을이 번성하며, 오래오래 자손이 이어져 향화(香火)가 끊이지 않는다 하는데, 그것은 어쩌면 이런 곳이 피난에 가장 적지라는 말인지도 모른다.

그러고 보면 매안의 지형이 바로 비산비야였다.

노적봉의 영기(靈氣)가 벋어 내린 발등에 터를 잡아서 그 발 아래 논을 밟고 서 있는 형국이 매안의 지세였던 것이다.

그곳에 처음으로 입향한 현조(顯祖) 한 몸의 자손이, 몇 백 년 동안 나고 또 나서 온 매안에 가득 차고, 잔등이 너머 다시 작은집 마을 하나를 더 이루도록 창성한데.

이런 벌족한 동성(同姓) 마을의 이만큼에 외따로 멀리 물러앉은 여남은 집 산성촌(散姓村) 거멍굴은, 서로 생업이 달라 세 무더기로 끼리끼리 이마를 맞대고 있었다. (3권, 246~247쪽)

물리적 조건이 좋은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지위가 요구된다. 즉, 입지에 있어서 지리적 조건은 곧 그 곳에 거주하는 이들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특히, 매안 마을이 '노적봉의 영기가 서린 곳'이라는 점은 곧 매안 마을에 사는 이들의 지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인간에게 있어서 공간은 결코 균질적이지 않으며 그 속의 장소마다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10]는 점에서, '노적봉의 영기'는 매안이라는 공간을 다른 공간들로부터 차별화하는 요소이다. "사람은 곧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이고, 장소는 곧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11] 장소는 곧 사람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노적봉은 매안에 거주하는 인물들의 우월한 위치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물이다. 『혼불』에서 노적봉이라는 거대한 자연물은 공간적으로 위계화된 매안 마을의 위세를

10)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앞의 책, 86쪽.

11)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88쪽.

더욱 공고화시키고 매안 양반들의 우월적 위치 또한 부여한다.

반면에 거멍굴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들의 천한 신분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공간과 그 구성원들의 성격을 보여준다.

> 그 중에서도 가장 천한 것이 백정과 무당이다.
>
> 이 세상에서 짐승말고는 노비보다 더 심한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이 백정인지라, 일반 양인들과는 같이 섞여 살지도 못하고 성문(城門) 바깥 멀찌감치 물러나 저희들끼리 모여 사니, 다른 사람들한테 '성 아랫것'이라는 비칭 낮춤말을 들었다.
>
> 그것은 부성(府城) 고을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였다. 사부(士夫) 반촌(班村)의 마을에는 말을 꺼낼 것도 없고, 민촌(民村)이라 할지라도 그 마을 안에 버젓이 섞여 살 수는 없었다.
>
> 안에는 그만두고 언저리도 안되었다.
>
> 그래서, 매안을 바라보고 그 서슬 아래 살 것이면서도 그쪽으로는 감히 허리 들고 지나갈 엄두조차 못 내고는 산 모롱이 하나를 꺾어서 한참이나 내려와 돌아앉은 이곳에 자리를 잡은 것이리라.
>
> 그래도 민촌 고리배미까지는, 그보다는 좀 가까웠고, 길도 조옥 나있어 가기도 쉬웠으며, 서로 아득하게나마 바라보이기라도 하였다. (3권, 257쪽)

거멍굴을 구성하는 이들은 백정, 당골네와 점쟁이, 고인(鼓人) 잽이, "백정도 당골도 아니면서 머뭇머뭇 정착하게 된 이들"(3권, 265쪽)이다. 택주, 만동, 백단 등은 그들의 천한 직업으로 소개되며, 공배네, 옹구네, 평순네 등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 딱히 소개될 근본이라 할 것이 주어지지 않은 이들이다. 거멍굴의 형성 과정에 대한 위의 서술은 매안의 형성 과정을 서술할 때와 사뭇 다른 방식을 통해 전달된다. "공간의 성격은 상대 공간에 의존해서 획득되는"[12] 것이기에, 두 공간에 대한 상

12) 조명기, 「중심/주변 공간 위계의 내면화 기제」, 『로컬리티 인문학』 2,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10. 228쪽.

반된 서술내용과 서술태도는 각 공간의 특성을 드러낸다. 『혼불』은 거멍굴 사람들이 소개될 근본이나 유래가 없는 사람들임을 들어 이들의 지위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공간은 주체와 무관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인물은 공간 내부에서 움직이지만 공간은 주체와 관련을 맺는 특정한 기준 체계이다.[13] 때문에 공간을 살피는 것은 공간에 머무는 인물들을 파악하는 일이기도 하다. 거멍굴은 양인들과 섞여 살지 못하는 이들이 모여 형성된 타자들의 공간이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양인들과의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규율로 인해 거멍굴 주민들은 매안의 양반들을 포함한 모든 양인들에 대해 심리적인 거리를 가지게 된다. 더욱이, 거멍굴 주민들에게 있어서 매안의 반촌은 '허리 들고 지나갈 엄두조차 못 내'는 곳이다. 또한, "'가깝다'와 '멀다의 의미는 상호간의 친밀감과 지리적 거리의 정도가 복합된 것"[14]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의 예문에서 거멍굴 주민들의 입장에서 고리배미에 대해 '그보다는 좀 가까웠고'라는 서술의 의미는 좀 더 명확해진다. 위의 서술은 단순히 물리적 거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문장이 아니다. 『혼불』은 매안과 거멍굴 사이에 고리배미를 배치함으로써 매안 마을 속, 매안, 고리배미, 거멍굴 사람들이 지니게 되는 상대적인 심리적 거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공간의 의식적인 구조화는 주어진 공간에 대한 인물들의 의식과 지각을 통해 추적해낼 수 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는 서술자는 신뢰할 만한 대상으로, 그의 서술은 '사실'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다. 『혼불』의 서술자는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공간에 대해 서술하거나 인물들이 공간에 대해 취하는 행동을 서술함으로써 인물들의 의식 내부에 구획된 공간의 구조화를 보여준다. 다음은 거멍굴에서 바라

13)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앞의 책, 70쪽 참조.
14) 이-푸 투안, 앞의 책, 86쪽.

보는 매안에 대한 서술 대목이다.

> 매안 문중의 마을은 여기 거멍굴에서는 아득할 만큼 멀어 보인다. 아니, 멀다기보다는 보이지 않는다는 편이 옳았다. 불이 밝혀진 방문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짐작되기도 하겠지만, 꼭 그래서만은 아닌, 물을 건너고 굽이를 돌아 엄중한 막을 치고 저만큼 있는 곳. (3권, 22쪽)

위의 서술은 '여기 거멍굴에서는'이라는 지시어를 통해 거멍굴 사람들의 지각을 보여준다. 위 서술의 초점화자는 거멍굴 사람들로, 거멍굴 사람들이 매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식을 보여준다. 인물이 아닌 서술자의 목소리를 통함으로써 특정 개인의 지각이 아니라 '여기' 즉, '거멍굴 사람들의' 인식을 전달한다. 즉, 매안에 대해 '아득하다'고 느끼는 인식의 주체는 거멍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득하기만 했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거멍굴에 사는 천민들에게 반촌은 물리적 거리와 별개로 '아득한'이라는 용어로 설명되는 거리에 위치하게 된다. "거리는 자신으로부터의 거리이다. 많은 언어들에게 공간적 지시대명사와 인칭대명사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15] 거멍굴 사람들은 매안에 수시로 드나들면서도 매안에 대해 '아득하다'고 거멍굴 사람들의 입장을 서술하는 것은 천민으로서 매안의 양반들에게서 느끼는 신분적 차이를 공간적 거리로 투영하기 때문이다. '아득하다'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는 거멍굴 주민들이 양반들에 대해 체감하는 거리감은 물론 신분의 차이에서 비롯하는 경계에 대한 의식을 짐작할 수 있다. 즉, 거멍굴 주민들에게 매안 반촌까지의 거리 사이에는 현실에서 넘어설 수 없는 신분제의 경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즉, 거멍굴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안은 장소로 자리하지 않는다. 그들

15) 이-푸 투안, 위의 책, 82~83쪽.

은 매안에 수시로 드나들곤 하지만 천민이라는 신분에 의해 매안은 그들에게 완고하게 닫힌 공간이다. 매안에 거주하는 노비 신분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이다. 매안에서도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종가에 거주할지언정, 그들은 결코 매안의 구성원으로서 여겨지지 않는다. 매안의 중심부에 거주한다는 사실과 별개로 매안은 천민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장소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천민들에게 있어서 매안은 소속감을 심어줄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며, 따라서 개인의 정체감의 원천이 될 수 없다.[16] 『혼불』의 등장인물들은 매안이라는 같은 공간을 점유하고 살아가지만, 이들이 감지하는 장소성은 엄연히 다른 양태를 보인다.

신분의 차이에 의한 심리적 거리는 거멍굴 사람들만 느끼는 부분이 아니다. 문중의 양반들 또한 이러한 차이를 생활에 전제하고 있음이 다음 대목에서 드러난다.

> 그러나 아무리 장날이라고 해도, 매안의 이씨 문중 사람들은 모습을 비치지 않았다. 장 길에 익숙한 머슴이나 재바른 하인을 시켜 심부름을 보내기 때문이었다.
>
> 만일 이도 저도 여의치 않은데 피치 못할 급한 일이 생긴 누가 있다 하더라도, 장에 가는 일만큼은 정거장으로 나오지 않고, 오수, 남원까지 걸어서 소롯길로 혼자, 눈에 뜨이지 않게 다녀왔다. (3권, 244~245쪽)

> 도대체 매안의 지체로 양반의 자제가 이 천민들 엎어져 사는 하촌(下村)에 발을 디뎌 들어선다는 것부터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중략)
>
> 그러니 장에만 가도 큰일나는 줄 아는 매안의 이씨 그 누구라도 이 거멍굴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은 아직 없었다. 하나도. (8권, 51쪽)

16)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150쪽 참조.

위의 인용문을 통해 양반들이 일상적으로 천민들로부터 유지하려는 '차이' 혹은 '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 거멍굴 사람들이 매안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고 거리감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안의 양반들 또한 거멍굴에 대해 거리감을 가진다. 천민들과는 섞이지 않겠다는 의식이 매안의 양반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감수하게 하는 것이다. 천민들의 거주지인 거멍굴은 물론 일시적으로나마 일정 공간을 공유하게 되는 장터에까지 발을 디디지 않으려는 그들의 생활 수칙은 천민들과의 한시적인 어우러짐조차 거부하는 것이다.

『혼불』의 배경으로서 서사 공간인 매안과 거멍굴은 엄연히 다른 지리적·물리적 특성을 가진다. 장소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마련이지만, 『혼불』의 경우 공간 서술 방식과 태도에 의해 매안이라는 공간이 인물들의 삶의 저변으로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장소 의식을 부여하는 공간으로 자리하지 않는다.[17] 오히려 같은 공간에 대해 가지는 다른 장소 의식으로 인해 『혼불』의 공간 구조는 인물 간의 위계를 공고히 하는 요소로 역할 한다.

이러한 공간의 위계화는 『혼불』의 서사 전개에 있어서 전제가 된다. 매안과 거멍굴 사이의 위계는 신분질서 즉, 인물들 간의 위계를 드러낸다. 인물들이 처한 위계적 상황은 타자의 위치에 자리하는 인물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주요 갈등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강모는 위계에서 오는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매안을 떠나며, 춘복과 백단네 부부는 위계의 경계를 넘고자 투장을 감행한다.

17) 에드워드 렐프, 위의 책, 86쪽 참조.

Ⅲ. 쌍방적 공간해체의 본격화

2장에서 살펴본 바, 매안은 위계적 공간으로 자리한다. 지리적 구조와 인물의 의식 층위에 의해 공간의 이원적 구도가 확고하게 구획된다. 그런데, 매안과 거멍굴의 이원적 구조는 서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체가 시도된다. 확고한 경계의 구축에 서술자가 관여한 것과 달리, 경계의 해체는 인물들에 의해 시도된다.

1. 위로부터의 경계 해체 움직임

위로부터의 경계 해체 움직임은 청암부인의 손자들인 강호, 강태 강모에 의해 시도된다. 먼저, 동경 유학 중인 강호는 자신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물을 주워다 팔고, 인력거를 끈다. 이는 양반가의 자제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딱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그는 몸소 학비를 벌었으며, 노동과 근로야 "정확한 교환 방법이고, 또 정직한 소득"이라 말한다.

다음은 강호와 기표의 대화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 강호 - "사람들이 내버리는 빈 병도 주워다 팔고, 못쓰게 된 파지나 고물도 다 주워다 팔지요."
> 기표 - "쓰레기통을 뒤지는 넝마주이"
> 강호 - "인력거도 끕니다."
> 기표 - "천하 상것들이 메는 게 가만데."
> 강호 - 노동과 근로야 말로 "정확한 교환 방법이고, 또 정직한 소득"
> (7권, 256~257쪽 참조)

강호는 문중의 어른들 앞에서 자신이 돈을 벌고자 한 일에 대해 당당

하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물론, 강호는 이에 대해 문중의 어른들이 탐탁지 않게 여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어른들의 심기를 거스르며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세상의 변화와 신분제도의 비합리성에 대해 우회적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의 대화에서 기표는 강호가 한 일들에 대해 '상것들의 일'이라 칭한다. 이는 문중 어른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다. "온 마을 문중에서 맨 먼저 머리를 깎고 구두를 신은 개명 양반"(4권, 96쪽)으로, 매안에서 신문물을 가장 먼저 접하고 수용하고 있는 인물로 그려지는 기표마저도 이를 용인하지 못한다. 신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적 태도와 달리 자신이 누리는 양반의 지위에 대해서는 이전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강호의 경계 해체 시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덕석말이를 당한 춘복과 백단이네 부부를 만나기 위해 직접 거멍굴로 찾아 가서, 자신이 직접 일하여 번 돈을 약값으로 쓰라며 건넨다. 양반인 강호가 거멍굴에 직접 찾아온 것은 이제껏 금기시 되어 왔던 일이다. 때문에 거멍굴에서 강호와 마주친 공배네는 겁부터 먹고 긴장을 늦추지 못한다.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불안'을 느낀 것이다.

망설임 없이 거멍굴을 직접 찾아든 강호의 행동은 강호의 의식 내부에서 이미 신분 질서가 무너졌고, 따라서 강호에게 있어서 매안과 거멍굴의 경계 또한 붕괴되어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는 경계 너머에 자리하는 춘복, 만동, 백단을 위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경계를 넘어선 것이다. 또, 이러한 강호의 경계 넘어서기는 공배네와 택주의 반응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가늠해볼 수 있다. 강호의 경계 해체 시도는 거멍굴 사람들이 양반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거리를 완화시키고 있으며, 이후 심리적인 거리까지 무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강태의 경우에는 강모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할머니인 청암부인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기존 신분제의 모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 다음은 강모와의 대화에서 강태가 청암부인에 대해 말하는 대목이다.

> "아니다. 할머니가 생전에 이루신 엄청난 재산이라는 것이, 뒤집어 말하면 소작인들에게서 가장 많은 이윤을 남기고 그악스레 긁어 모았다는 증명밖에 더 되겠어? 정당한 물물 교환으로 할머니와 소작인들이 서로 평등하게 이익을 나누었다면, 도저히 그런 재산은 모을 수가 없는 일이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으냐? 그 양반은, 지주로서의 특권과 횡포를 최대한으로 누리신 분이라고 할 수 있지." (3권, 62쪽)

강태는 지금까지 자신이 누려왔던 기득권이기도 한 청암부인의 부(富) 축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의문을 제기한다. 강호와 강태는 자신들이 누려왔던 지위나 특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보이는 인물들이다. 매안에서 기득권을 누렸던 강태가 자신이 누려왔던 기득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강태의 의식 속에서 매안과 거멍굴의 경계가 이미 해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식 변화는 작품의 말미에서 강모에게서도 확인된다.

강호 강태 강모 세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식의 변화는 그동안 완고했던 매안과 거멍굴의 보이지 않는 경계 해체에도 직접 작용한다. 특히 강호가 자발적으로 거멍굴을 방문하는 행위 자체가 위로부터의 경계 해체의 움직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 아래로부터의 경계 해체 움직임

반면에 아래로부터의 경계 해체의 움직임은 춘복과 우례에게서 드러난다. 춘복은 일찍부터 작은아씨 강실을 탐한다. 춘복이 강실을 탐하는 목적은 양반가의 딸인 강실에게서 자신의 자식을 출산하는 것에 있다.

> (내가 이날을 이때끄장 지달렀능게비다. 그럴라고 이 거멍굴에 엎어져서 살었능게비다. 부모가 있이까. 성지간이 있이까. 아무껏도 없는 바닥을 못 떠나고, 허허벌판 추운 시상을 모진 맘 먹고 천덕꾸레기로 살었다마는, 나라고 언지끄정 상놈으로만 살겄냐. 나는 죽어도 상놈 자식은 낳기 싫었능게. 이 육시랄 노무 상놈 꺼죽 훨훨 벗어 내부리고, 사램이 사는 것맹이로 살고 자펐다. 무지헌 곰도 하눌님 아들을 만나서 인연을 지으먼 곰껍닥을 벗고 사램이 되는디, 나도 언지든지 이 껍닥을 벳게 내고 사램이 되게 해 줄 여자를 만날라고, 그럴라고 지금끄장 살어왔다…….)
>
> 춘복이는 어금니를 지그시 물며 다시 한번 오류골댁 쪽을 노려본다.
>
> (작은아씨. 내 자식 하나 낳아 주시요. 나는 작은아씨한테 양반 자식 하나 얻고, 작은 아씨는 나한테 상놈 자식 하나 얻으시요.) (3권, 24~25쪽)

춘복이 강실에게서 자식을 낳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이유는 상놈으로서 자신이 겪어야 했던 설움으로 인한 것이다. 춘복은 부모, 형제 없이 상놈으로 살면서 자신의 설움을 대물림하지 않고자 자식을 낳기 싫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강실이라는 여인이 아니라 강실의 양반이라는 신분임을 분명히 드러낸다. 이러한 의식은 그간 양반에게 가졌던 반감의 표출이라 할 수 있는데, 춘복이 가진 반감이 양반으로부터 자신이 겪었던 설움을 복수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양반을 통해 양반의 자식을 얻겠다는 것은 자신도 양반과 상놈의 경계를 넘어서고자 한다는 욕망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청암부인이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정월대보름, 춘복은 그간 자신이 품었던 욕망을 실행시키고자 한다. 다음 장면에서 춘복은 강실을 범하기 전에 달의 기운을 받고자 산에 올라 마음을 다잡는다.

> 등성이에 가려져 매안은 보이지 않았다.
> 그러나 춘복이의 눈에는 그 마을이 선하게 들어왔다.
> 개울을 건너 아랫몰과 중뜸에 이르는 고샅이며, 돌담과 대나무 울타리들이 어우러진 굽이굽이에 붉은 비늘 돋은 적송 서너 그루씩 등천하는 기세로 검푸른 머리 드리운 정경, 그리고 검은 구름 덩어리가 위용으로 뭉쳐 있는 것 같은 골기와 지붕의 원뜸 대갓집이며, 솟을대문, 그리고 그 아래 다소곳한 머리를 아담하게 수그리고 있는 오류골댁 초가지붕과 살구나무 둥치. 그 고목의 아름드리 뒤에 소리 없이 숨어 있는 작은아씨 강실이.
> 강실이.
> 춘복이는 그네의 모습이 떠오르자 어금니를 물었다. 그리고 점점 땅거미가 내려앉고 있는 매안 쪽을 충혈된 눈으로 쏘아보았다. (5권, 173쪽)

춘복은 산등성이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매안을 그대로 떠올린다. 그리고 그 끝에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 줄 강실이 있다. 그에게 있어서 매안마을이라는 공간은 양반이라는 신분의 표상이다. 그가 강실을 떠올리며 오류골 댁을 노려보았던 것이나 어금니를 물며 충혈된 눈으로 매안을 쏘아보았던 것은 반촌으로 진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곧, 마을을 지배하고 있는 경계 해체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인 것이다.

춘복은 강실을 겁간하면서도 강실이 "네 이놈, 죽고 싶으냐." 혹은 "천하의 불상놈 같으니라고. 네가 감히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와 같은 무슨 말이라도 해주었으면 싶었다고 한다.(6권, 135쪽) 이는 춘복이 강실을 범하는 행위가 한 여인으로서 강실을 가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민

으로서 양반과 천민의 경계를 넘는 행위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경계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저항이 동반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강실이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으니 춘복으로서는 의아하고 오히려 불안한 것이다. 더욱이 이후 나타나는 강실의 태기는 강실의 뱃속에 춘복이의 아이, 그러니까 거멍굴의 핏줄이 자라고 있음을 드러낸다. 춘복과 강실의 합궁, 그리고 이어지는 강실의 태기는 인물들의 의식 내부에 존재하였던 확고한 경계가 무의미한 것으로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우례의 경우를 살펴보자. 우례는 이씨 집안의 침비로 오래전에 기표와의 관계를 통해 아들인 봉출을 낳았다. 양반인 기표와 노비인 우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봉출이다. 그리고 이는 둘뿐만 아니라 마을의 모든 이들이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례는 이씨 집안의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이 침비로 살고 있으며, 둘 사이의 아들인 봉출은 기표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별개로 그저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다음은 봉출의 출생에 관한 사실과 봉출에 대한 우례의 소망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 그냥 얼핏 닮은 구석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선명한 붉은 인주로 도장을 찍어 놓은 것처럼 얼굴의 모색도, 두상도, 체형도, 그리고 쉰 듯하면서도 칼칼한 음성까지도 영락없이 닮은 얼굴이었다.
>
> "봉출아, 너는 어쩌든지 꼭, 니 성을 찾어라. 내가 나중에 죽고 없드라도. 너는 추(秋)가가 아니고 이씨다. 잊어 부리지 말그라. 너는 이씨여. 추봉출이 아니라 이봉출이여, 이(李). 어쩌든지 꼭, 너는." (4권, 87쪽)

위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우례는 봉출이 어렸을 때부터 "추(秋)가가 아니고 이씨"(4권, 87쪽)라며 거듭 당부하였으며, 언젠가 이씨 가문 내부로 들여보내고자 하는 욕망을 오랫동안 품어왔다. "너는 어쩌든지,

꼭."(4권, 86쪽)이라고 거듭 다짐하는 우례는, 그러나 지금껏 봉출의 신분 상승을 위해 어떤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씨 집안에 대한 반감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왔을 뿐이다. 아들에 대한 마음과 달리 우례에게 있어서 매안 양반들과 자신 사이의 경계는 섣불리 넘어설 수 없었던 것이다.

아버지인 기표와의 부자관계임이 온 마을에서 공공연한 사실로 여겨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봉출은 이씨 문중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집안의 노비로 살아왔다. 봉출의 신분을 돌려놓겠다는 우례의 바람은 어디까지나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넋두리로 여겨지지만, 우례가 옹구네의 계획에 가담함으로써 경계 해체의 움직임에 동참하게 된다.

> 우리 봉출이, 우리 아들, 내 자석, 금쪽 같은 이씨 자석, 이 가문으로 단 하나 금싸래기 씨앗으로 요놈 한나 달랑 남을랑게비여. 하이고오.
> 내가 천헌 종년이라고, 자식도 따러서 그럴 거이냐. 아부지가 지신디. 내가 느그 아부지를 꼭 찾어줄 거이다. 봉출아. 조께만 지달러라.
> 우례는 저도 모르게 부적 꽂은 앙가슴 치마말기를 누른다.
> 오지 마라, 오지 말어. 느그들은 오지 말어어.
> 우리 봉출이 자리, 아무도 와 넘보지 말어. (10권, 313쪽)

우례는 옹구네로부터 받은 부적을 기표의 베개에 넣고자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봉출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강태와 강모가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을 드러낸다. 그간 마음으로만 품고 있었던 바람을 이루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부적을 기표의 베개에 넣고자 기회를 노리는 것이다. 그동안 막연히 꿈만 꿨던 바람을 이루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우례와 강실로 하여금 자신의 아이를 임신시킨 춘복의 시도는 적자와 서자 사이의 경계 혹은 양반과 천민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내고자 하는 아래로부터의 시도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움직임 사이에서 자신의 의지와 별개로 경계 해체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강실과 봉출이다. 우선 강실은 사촌지간인 강모와의 상피로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인물이다. 이 사실은 비밀로 부쳐지는가 싶었지만, 춘복과 옹구네에 의해 소문으로 돌게 된다. 매안 이씨 양반들 사이에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옹구네와 춘복이를 중심으로 거멍굴에서는 이 사실이 소문으로 돌기 시작하였으며, 우례와 봉출, 콩심이와 같은 매안 이씨 집안에 거주하는 종들에게도 이 사실이 알려진다. 설사 이 일이 인물들 사이에서 비밀로 지켜진다 하여도 표면화된 이상, 매안 이씨의 지체는 이전과 같지 않다.

매안 이씨 가문 안팎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거멍굴 사람들이 매안 문중에 대해 가지는 의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문중의 위상이 떨어지기 시작함과 함께 매안의 양반들과 거멍굴의 천민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었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강호가 거멍굴을 직접 방문하고, 강실이 옹구네에 거처를 마련하는 두 사건을 필두로 매안과 거멍굴의 이원적 공간 구도는 해체의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경계 해체는 구한말 신분적 질서를 비롯한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Ⅳ. 청암부인과 공간 위계

『혼불』의 공간 위계 형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청암부인이라는 인물이다. 매안 종가의 며느리로 평생을 살아온 그녀가 집안을 일으키는 과정은 문중의 위세는 물론 양반의 위엄을 세웠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을 지켜본 거멍굴 사람들이 매안에 대해 가지는 심리적 거리 내지는 우러러 보는 실질적인 대상은 청암부인인 것이다. 때문에

『혼불』의 공간을 살핌에 있어서 청암부인이라는 인물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

청암부인은 작품의 서두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그럼에도 청암부인이라는 인물이 서사전개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청암부인의 일화가 소개되는 것은 물론이고, 인물들에 의한 대화나 회상 그리고 투장사건을 통해 청암부인은 작품의 후반부까지 지속적으로 언급된다. 청암부인이 차지하는 서사적 존재감은 주인공인 강모와 효원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강모가 뒤늦게 청암부인의 부고를 접하였을 때 강모의 심정은 십 여 쪽에 걸쳐 서술된다.(10권, 92~101쪽) 또한, 그가 도망치듯 떠나왔던 매안을 그리워하게 하는 것 역시 청암부인의 부고이다. 효원 역시 강모가 떠난 매안에서 의지할 대상이라곤 오직 청암부인이라 밝히고 있다.(3권, 171쪽) 효원의 경우 시어머니인 율촌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암부인에게 의지한다. 이는 청암부인이 죽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청암부인의 존재감은 비단 강모와 효원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를 지배한다. 내동댁 떡애기 손자가 밟혀 죽은 사건으로 마을이 발칵 뒤집혔을 때에도 '어른이 안 계셔서' 일어난 변고(6권, 137쪽)라는 반응을 통해 청암부인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청암부인이라는 인물이 수행하는 서사적인 기능을 살핀다면 청암부인이 『혼불』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살필 수 있다. 『혼불』의 대서사 전개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 역할을 하는 사건이 '청암부인의 죽음'이라는 점은 『혼불』에서 청암부인이 담당하는 서사적 역할에 대해 재고하게 한다. 청암부인의 죽음은 춘복과 우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아래로부터의 경계 해체의 욕망이 구체화되어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데에 가장 큰 도화선 역할을 한다. 우선, 춘복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다음은 청암부인이 죽기 전의 일로, 춘복이 강실에

대해 가진 욕망이 텍스트 상 처음 드러나는 부분이다.

> (그것도 인자 옛날 이애기다. 청암마님 돌아가세 바라. 아직끄장은 그래도 그 훈짐이 끊어지들 안했응게 버티고 있겄지마는 오늘 니얄 숨 떨어지먼 그 집도 헛간 된다. 누가 지킬 사램이 있어야제. 되야가는 꼬라지가 손바닥 뒤집어보디끼 한눈에 훤히 뵈는디? 누가 누구를 지킬 거이냐? 배깥이서 드는 도적은 지켜도 안에서 나는 도적은 못 막는다고 안 그러등가?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어. 율촌샌님 병약허고 새서방은 전주로 달어나 부리고. 거그다가 강실이는 인자 이 마당에 어디로 시집을 갈 꺼이냐. 소문이랑 거이 얼매나 무선 거인디. 허깨비맹이로 뵈이도 안헝 거이 생사람 목심도 잡는 거인디 말이여. 거그다가 그거이 보통 일도 아니고 들통나먼 즈그 집안 낯바닥에 똥칠허는 거인디. 벙어리 냉가심이나 앓겄지. 쥑이도 살리도 못헐 사램잉게. 강실이는 오도가도 못허고 앉은 자리서 말러 죽게 생겠을 거 아닝가?) (3권, 23~24쪽)

춘복은 청암부인이 죽고 나면 매안이씨 가문의 위세가 달라질 것이라 여기고, 그 때를 노려 강실이를 아내로 삼고자 벼른다. 춘복은 실제로 청암부인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오랫동안 품어왔던 자신의 욕망을 실행에 옮긴다.

그렇다면 춘복이 청암부인이 죽기 이전에 강실을 범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춘복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청암부인의 죽음을 전제하는 것은 문중의 중심에 청암부인을 상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춘복이 청암부인을 매안이씨의 가문과 반촌을 둘러싼 경계와도 같은 인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매안 이씨 가문을 둘러싸고 있는 넘을 수 없는 경계는 청암부인이라는 인물과 동일시되고 있는 것이다.

청암부인이 인물로서 점유하는 위치는 아들인 이기채와의 비교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난다. 『혼불』의 시대적 배경인 전통사회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선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청암부인은 나이 또한 연로하다. 이기채가 중년의 남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기채야 말로 이씨 집안을 대표하는 인물로 꼽혀야 마땅하다. 그러나 몸이 쇠약하고 기세가 청암부인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이기채는 독자에게는 물론 아랫것들인 종들과 거멍굴 주민들에게 매안 이씨 집안의 대표로서 신뢰 받지 못한다. 이기채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안서방과 효원이 걱정하는 장면 또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고봉밥 뒤꽁치로 꽁꽁 눌러서 수북허니 고깔맹이로 먹어도 돌아스먼 배고픈 거인디, 우리 샌님께서는 허구헌 날 저렇게 죽 미음만 잡수시니, 무신 기운으로 이 큰 살림을 관장허실 거잉고오."

저러다가 여차 한번 씨러지시먼 참말로 어쩔 거잉고오잉. (7권, 77쪽)

"아버님께서 점심 진지도 안 자셨는데, 저리 노여우시니 혹 현기증으로 어지러우실까 걱정이 되는데요."

효원은 안채 대청마루에 나와 선 율촌댁한테 근심스럽게 말한다. (7권, 98쪽)

집안의 종에 불과한 안서방네가 이기채를 걱정하는 위의 서술은 이기채가 매안 이씨 집안의 살림을 관장하기에 쇠약하다는 점, 심지어 종인 안서방네까지 이를 걱정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후 투장사건이 발각되어 기채가 만동, 백단 부부를 문초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쓰러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가의 어른으로, 매안의 중심으로 여겨지는 청암부인의 존재감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었다. 전통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제약 조건을 가진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생에 걸쳐 해왔던 일들은 이씨 집안은

물론 매안 마을을 일으켜낸 업적으로 기릴 만한 일이었던 것이다.

청암부인은 자신이 신행 왔을 당시의 시댁을 이미 신랑도 죽고 없는 이씨 집안에는 '의지하고 살 사람 하나도 없는 집'이라 칭한다. "그야말로 텅 비어버린 듯한 집채를 향하여 열아홉의 나이로 신행을"(1권, 90쪽) 왔던 청암부인은 삼천 수백 석을 평년작으로 해내게끔 집안을 채워냈다. 그가 채운 것은 집안의 곳간만이 아니었다. 마을에서 이씨 집안의 위치와 늘어난 농사의 규모로 인해 마을은 물론 마을 언저리에 사는 거멍굴 사람들의 생계까지도 부양한 것이다.

또한, 청암부인은 매안의 지세에 서운함을 가지고 이를 인력으로 극복하고자 저수지 축조라는 큰 사업을 벌인다.

> 그러나 청암부인으로서는 항상, 이 매안의 지세가 서운하였다.
> 토질이 척박하고 평야가 없었으며 물이 모자라는 점, 그리고 들이 더 넘쳐갈 수 없도록 사방을 에워싸고 있는 산이 흙덩어리와 잔솔밭 이외에 크게 쓸모가 없는 것들이 마음에 차지 않았던 것이다. (1권, 88쪽)

> 그 뒤로 사람들은 그 저수지에 존중하는 뜻으로 호수 호(湖)자를 붙이고, 청암부인의 택호 첫머리를 따서, 청호(晴湖)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과연 조개바위 음덕을 입어서 그런지, 웬만한 가뭄이 들어도 푸른 물 찰랑이는 청호는 바닥을 드러내지 않게 되었다. (1권, 166쪽)

청암부인은 늘 물이 모자랐던 마을을 위해 사재를 털어 저수지 축조에 들어간다. 저수지 축조는 일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기채 역시 "저수지를 파고 넓히는 것은 일개 백성의 뜻이나 힘으로 하기에 벅차고도 분에 넘치는 일 아니겠습니까? 나라에 조정이 있고 고을에 원이 있으며 관(官)이 있는데, 함부로 나설 일도 아니거니와 허락을 얻기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1권, 156쪽)라며 청암부인을 만류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암부인은 저수지를 축조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는다.

더욱이 저수지 축조에 소요되는 시간과 품삯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감당하였다는 사실은 청암부인의 인물됨을 드러낸다. 저수지를 축조하려는 청암부인에 대해 "누가 감히 청암부인을 '아녀자'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1권, 155쪽)라고 덧붙인 서술자의 논평으로 인해, 청암부인의 위치는 더욱 격상된다. 그 결과물인 청호는 매안 이씨 집안은 물론 온 마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유용한 시설로 사용되고, 전통 사회에서 한낱 여성에 지나지 않는 청암부인의 택호를 따서 저수지에 이름을 붙였다는 사실은 청암부인의 위세를 보여준다. 저수지 축조는 청암부인을 매안 이씨 집안은 물론 매안이라는 공간 혹은 마을 공동체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든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청암부인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인식은 청암부인의 부고를 접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나 죽은 다음에는 동네 사람들을 후히 먹이라."(4권, 247쪽)는 청암부인의 유언에 대해 매안의 마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

> 문중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 "과연 종부는 다르시다."
> 고 하였고, 거멍굴 사람들은 입이 벌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비죽였다.
> "아이고, 살아 생전에 엥간히 모질게 했어야 말이제. 소복 입고 시집 와서 저 큰 재산을 다 모우드락 오직이나 넘 못헐 일 많이 시켰겄능가잉. 그렇게 죽어서라도 인심을 조께 써야겄지. 그리야 누구한테 척을 안지고 존디로 갈팅게." (3권, 130쪽)

문중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을 먹이라는 청암부인의 아량에 감탄을 보내지만, 정작 거멍굴의 사람들은 그간 청암부인이 재산을 모으는 동안

의 일들을 떠올리며 비죽인다. 이는 거멍굴 사람들의 비죽임은 청암부인이라는 한 인물에 대한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천민으로 살면서 양반가에게 당했던 설움을 투사하는 대상일 뿐이다. 청암부인은 그 자체로 양반가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그러나 거멍굴 사람들의 반응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그치지 않는다. 다음은 청암부인의 죽음에 대해 거멍굴 사람들이 느끼는 바를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전달하는 서술이다.

> 어차피 매안의 언저리에 버섯처럼 피어나 그곳에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는 거멍굴이지만, 그 중에서도 원뜸의 대갓집이라면 어서 서둘러서 허드렛일을 하러 올라가야 한다. 원망은 원망대로 없는 것이 아니었으나, 또 그 댁의 부스러기로 은덕을 입은 것은 입은 것이었고, 말로는 무엇이라고 하건, 누구라도, 부인의 초상이 허퉁하고 슬프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었다.
> 웬일인지 의지할 곳이 없어진 것 같았다.
> "대실서방님은 임종도 못 보고, 시방 어디 가 지시능고."
> 평순네가 혼자말처럼 중얼거린다. (3권, 130~131쪽)

거멍굴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청암부인의 유언에 비죽였지만, 그 속내에는 허망함과 슬픔이 자리한다. 청암부인은 매안의 어른으로서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었던 것이다. 때문에 거멍굴 사람들은 청암부인의 죽음에 대해 비죽이면서도 허퉁하고 슬프게 느끼는 것이며, 그들의 부모나 친지가 아님에도 의지할 곳이 없어진 것 같다는 일종의 '상실감'을 느끼는 것이다. 마지막 대목 평순네의 말은 청암부인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강모에 대한 원망임과 동시에, 손자를 보지 못하고 눈 감았을 청암부인에 대한 걱정이기도 하다.

청암부인이라는 한 인물의 자장은 서사 전체에 작용한다. 특히 거멍굴 주민들에게 있어서 청암부인의 존재는 매안 문중과 연결되어 가문의

위세를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청암부인이 양반과 천민 사이를 구분하는 신분적 질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청암부인의 존재 자체가 거멍굴의 천민들에게는 넘어설 수 없는 경계로 작용하는 것이다. 곧, 청암부인은 한 인물로 존재한다기보다 자체로서 매안 문중을 상징하며, 매안과 거멍굴, 양반과 천민의 경계를 설정하는 서사적 역할을 담당한다.

거멍굴 사람들과 노비들이 매안의 양반들에 대해 가지는 위계적 태도는 신분적 질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청암부인이라는 인물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청암부인의 죽음은 곧 이원적으로 구성된 공간의 경계 해체로 이어진다. 등장인물들의 의식 내부에 존재하던 매안과 거멍굴 사이의 의식적 경계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는 청암부인이라는 인물과 『혼불』의 공간 구성이 긴밀한 상관관계에 놓여 있기에 가능한 일이며, 이러한 서사적 양상은 『혼불』의 주제의식 구현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Ⅴ. 나오며

『혼불』에 드러나는 공간 해체 양상은 인물들의 의식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주요 배경인 매안 마을의 공간 해체가 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청암부인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전후하여 인물들의 의식 내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과 그 양상이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향적이라는 점은 많은 것들을 시사한다. 더욱이 이들 가문의 종손인 강모를 비롯하여 강태와 강호까지 집안을 비우고 있으며, 강실 역시 집안에서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강모의 아들 철재는 아직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 봉출 역시 기표의 아들임은 분명하나 그는 아직 매안 이씨 가문

안에 들지 못하였다. 봉출이 강태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수천댁의 우려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혹여 봉출이 경계를 넘어 가문 내부로 진입을 성공한다 할지라도, 이는 문중의 위세가 예전과 같지 않음을 증명하는 길일뿐이다.

결국 문중의 예후가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문중의 가세가 기울어가는 상황에서 매안의 위계 해체는 필연적 수순으로 보인다. 더욱이, 경계 해체의 움직임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나 무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매안을 둘러싼 경계의 해체가 이미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거나 혹은 이미 해체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해 보인다.

『혼불』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공간 해체 양상은 『혼불』의 주제의식과도 연결된다. 국운이 쇠퇴하는 시대적 상황을 매안 문중의 저변이 흔들리는 서사적 상황을 설정하여 사회적 혼란과 신분 위계의 와해를 그리고 있는 『혼불』의 주제의식과도 맞닿는다. 청암부인의 죽음과 문중의 종손들의 부재로 인해 매안은 이전의 위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으며, 이는 파국의 상황을 예견한다. 『혼불』의 서사 공간 구조화와 해체 양상은 작품의 '변동천하'라는 주제 의식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요소인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최명희, 『혼불』 1~10, 한길사, 1996.

2. 논문

김인경, 「1970년대 연작소설에 나타난 서사 전략의 '양가성' 연구」, 『인문연구』 제59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장일구, 「서사 구성의 공간성 함의 -『혼불』 구성 논의의 전제」, 『서강어문』 제14집, 서강어문학회, 1998.
_____, 「대하소설의 공간 형상 시론: 『혼불』을 사례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권 1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2.
_____, 「문학 언어의 미감과 문체 영향: 『혼불』을 단서로 한 시론」, 『현대문학이론연구』 제43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조명기, 「중심/주변 공간 위계의 내면화 기제」, 『로컬리티 인문학』 2,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3. 단행본

장일구, 『혼불읽기, 문화읽기』, 한길사, 1999.

렐프, 에드워드,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발, 미케. 한용환·강덕화 옮김, 『서사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9.
볼노, 오토 프리드리히. 이기숙 옮김,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르, 2011.
투안, 이-푸. 구동회·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대윤, 2005.

이 논문은 2015년 4월 26일에 투고되어 2015년 5월 10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15년 5월 18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국문초록>

『혼불』의 서사 공간 해체 구도

김 수 연

소설에서 공간은 '배경'으로 여겨진다. 배경은 인물이나 사건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으로, 그것이 지리적·자연적 환경이든 인문적 환경이든 여부와 별개로 사건을 이해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최명희의 장편소설 『혼불』의 주요 공간적 배경인 매안마을은 지리적 구도를 토대로 하여 마을 구성원들의 의식 내부에 확고한 경계를 구획하고 있는 곳으로 그려진다. 주목할 점은 작품 전반부에서 견고하게 그려지던 이 경계가 '청암부인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전환점으로 해체의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혼불』에 구조화 되어 있는 공간과 공간을 둘러싼 경계가 공고화되고 해체되는 과정과 양상을 살펴보았다. 서술자의 직접 서술에 의해 구축되었던 경계가 서사 진행 과정에서 인물들에 의해 해체되는 것이다. 구조화된 공간의 해체 양상은 서사 흐름의 전환과 맥을 같이 하는데, 전환점이 된 사건이 바로 '청암부인의 죽음'이다. 이는 청암부인이 단순히 한 인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하나의 서사적 장치로 역할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주제어: 최명희, 『혼불』, 공간 구성, 공간 해체, 서사 공간, 공간 위계

<Abstract>

The Aspect of Deconstruction of the Narrative Space in *Honbul*

Kim, Su-yeon

In a novel, space is considered as ‘background’. Background is a situation surrounding characters or incidences, and it can be a cue for understanding the incidences regardless of whether it is a geological/natural environment or a humanistic environment. Maean Village, the primary spatial background of Choi, Myeong-hee’s full-length novel *Honbul* is described as the space setting up a clear boundary within the consciousness of villagers based on a geological composition. One thing to be noted is that this boundary, which is clear in the first half of the work, comes to show the aspect of deconstruction having the incidence, ‘the death of Madame Cheong-am’, as a turning point. Thus, this study examined the process and the aspect that the space structuralized in *Honbul* and its boundary are consolidated and deconstructed. That is, the boundary directly established by a narrator comes to be deconstructed by characters in the narrative process. The deconstruction aspect of the structuralized space goes along with the conversion of the narrative flow, and the turning point is the very ‘the death of Madame Cheong-am’. This proves that Madame Cheong-am is not just a character but plays a role as one narrative tool dominating the whole work.

key words: Choi Myeong-hee, *Honbul*, narrative space, deconstruction